

## 아프니까 그럴지!

(우울증의 증상 4)

65세 된 어머니를 자녀들이 병원에 모시고 왔다. 그 노모는 6개월 여 전부터 방에 혼자 들어앉아서 머리가 아프다던가, 잠이 오지 않는다던가 하는 불편함을 호소해 왔는데, 두어 달 전부터는 아예 두문불출하고 식사도 거부한 채 “죽어야 하는데…”를 연발하고 있었다.

방에 눕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기만 하던 그 노모는 이제는 자식들이 무어라 이야기를 하여도 대꾸도 없이 먼 산만을 멀뚱하게 쳐다보기만 할뿐이어서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치매(癡呆)가 온 것 같다”고 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노모의 지적(知的)인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어 자신이 사는 곳은 물론이고 나이,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까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무어라고 혼잣말을 해대기도 하는데 자식들조차도 그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 하였다.

때로는 평생을 속 썩이는 법이 없는 세 자녀들에게 “너희들하고 안 산다”며 역정을 내어 몹시 당혹하게 하기도 하였다. 진료실에서의 집요한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던 그 노모는 딱 한마디만을 던졌다.

“아프니까 그럴지!”

30대에 일찍이 남편을 사별한 그 노모는 혼자 농사일을 하면서 어렵게 세 남매를 길러 왔었다. 남편이 남겨 준 것이라고는 몇 뼚 안 되는 전답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 돌보고, 또 농한기에는 시장 바닥에 나가 행상을 하며 ‘순전히 몸으로 품을 팔아’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자식들이 속 썩이지 않아 두 아들은 모두 장성하여 공무원이 되었고 딸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갔다.

마침내 막내아들까지 모두 장가를 들자 장남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와서 살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 노모는 “늘그막에 천덕꾸러기가 될 수 없다”며 한사코 반대하며 자신이 죽 살아왔던 시골 오두막에서 혼자 십 여 년 이상을 살았다.

동네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이상해졌다”라며 장남에게 전갈을 보내 온 것은 한 서너 달 전쯤이었다고 한다. 그 후 도시에 사는 아들네 집으로 옮겨온 어머니는 아들이 지어다 준

보약도 마다하고 식사조차 거부했으며,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다 못 하고 죽게 됐다”하기도 하고 “죽어라고 살았지만 내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며 한숨짓기도 하였다.

그렇게 귀여워하던 손자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무슨 말을 하여도 얼른 이해하지를 못 하는 것 같았다. 이 노모는 ‘가성 치매’라고도 불리는 노인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우울증이 특히 노년기에 찾아올 때면 상당수에 있어서 치매와 유사한(우울성 가성 치매) 인지 기능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노인성 우울증이 치매와 혼동을 유발하는 몇 가지의 이유는 첫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이 현저하게 나빠진다는 점, 둘째,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 하여 뒤척거리거나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자주 관찰된다는 점, 셋째,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버리거나 자신만의 깊은 생각(주로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엉뚱하게 대답해 버린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치매와 달리 이들 대부분은 지남력과 판단력이 ‘작동 가능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다만 외계에 대한 심한 무관심과 자신으로 향한 자책감 등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 노모는 항 우울제를 투여한 지 보름 여 지나서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도 가능해졌고 “신경통 때문에 죽겠으니 제발 아프지만 않게 좀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노년이란 무엇인가?

인생으로부터는 아무 것도 더 얻을 수가 없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죽음 저 너머는 아무 것도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해 줄 수가 없는 미지의 시간대(時間帶)일 뿐이다.

닥쳐오는 큰 두려움을 그저 관조(觀照)할 수밖에 없다는 속수무책의 느낌은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이것은 자신을 빨리 죽어야 하는 ‘형편없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격하시킨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미련을 남기지 말고 떠나야 할’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철회(撤退)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